

호주 최초의 비오니아 와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51> 알룸바

맑고 수수한 봄꽃이 가득 피어났다. 부드러운 질감이 풍족하지만 과하지는 않다. 산도 높은 화이트와인을 싫어했던 이들도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음미할 만한 풍미를 길게 남긴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알룸바의 비오니아 와인이다.

호주 와인은 잘 익은 진득한 레드와인이 전부라는 편견이 깨졌다. 알룸바는 전 세계 와인애호가들에게 호주 화이트 와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알룸바 팀 헤르만 세일즈 매니저는 서울 서초구 '오늘, 와인 한잔 예당점'에서 인터뷰를 갖고 "알룸바는 프랑스 남부의 포도품종으로만 생각되던 비오니아를 호주에 처음 들여온 것은 물론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40년 가까이 쌓인 경험과 노력으로 최고의 비오니아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오니아는 고급 화이트와인 품종이지만 키우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품종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와인 메이커의 실력이 모두 갖춰져야 제대로 된 비오니아 와인을 만들 수 있다.

현재 알룸바는 비오니아 품종에 있어서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있는 생산자다. 다양한 실험 재배가 가능했던 자체 종묘장과 170년간 쌓인 테루아에 대한 지식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

'알룸바 에텐 밸리 비오니아 2017'은 비오니아 품종 100%로 만들었다. 야생 효모로 발효를 해 맑고 자연스러운 질



알룸바 팀 헤르만 세일즈 매니저.

감이 잘 살아있다. 비오니아 특유의 풍미를 느끼려면 일반 화이트와인보다는 높은 온도로 마시는게 좋다.

'알룸바 에텐 밸리 비오니아'가 레드와인 같은 화이트와인이라면 '알룸바 바로사 GSM'은 향도 맛도 예쁘게 느껴지는 화이트와인 같은 레드와인이다.

'알룸바 바로사 GSM 2017'은 그르니슈와 쉬라즈, 마타로 품종으로 만든다. 3가지 품종은 각각 오크통과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양조과정을 거치며, 와인의 질감과 복잡미를 위해서 다양한 사이즈의 오크통을 사용해 숙성한다. 친근한 풍미에 밝은 과일 느낌으로 한식의 매운 육류와 먹기도 좋다.

알룸바 와인이 맑고 깨끗한 맛을 내는 또 다른 비결은 바로 오크통이다.

알룸바는 오크통을 제작하는 쿠퍼리지(Cooperage)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와인이나 품종의 특성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오크통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와인양조에 있어 큰 장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체 오크통 제작소를 가지고 있는 와이너리는 7개 밖에 없다.

알룸바의 '옥타비우스 올드 바인 쉬라즈'의 경우 일반적인 사이즈의 오크통(약 200L)이 아닌 90L의 작은 사이즈의 오크통에서 정밀하게 숙성해 오크의 풍미를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알룸바 옥타비우스 2015'는 100년 가까이 된 올드 바인 쉬라즈로 만든다. 바로사에 있는 매우 오래된 포도밭에서 건조농법으로 재배된 포도만으로 양조된다. 각 빈티지별 최고의 포도로 만들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오크통에서 정밀하게 숙성되는 레드와인이다. 검붉은 먹자두 같은 짙은 붉은 색이며, 진하며 매우 복합적인 자두와 길게 남는 감초의 풍미가 강렬한 탄닌의 여운으로 뒷받침된다.

지난달로 170주년을 맞은 알룸바는 호주 토착어로 '이 모든 땅'을 뜻한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 경영 와이너리인 올해는 6세대가 합류하면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인천대, 대학발전 재정 '청신호'

市 지원 보완 협약안 수정·가결
조성원가 공급 송도 땅 축소 합의

인천대는 지난 2013년 체결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보완한 '인천대와 인천광역시 간 보완협약안'을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대가 차입한 금액 1500억원 중 인천시가 243억원을 삭감하는 문제를 이번 보완협약안을 통해 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차입금 전액을 지원받게 돼 안정적인 현금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또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0억~200억원 이상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받는다. 단, 이 조항의 '인천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라는 단서 조항이 담긴 문구는 평의회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다.

시립대 시절 인천대 구성원들이 적

립했던 시립대학발전기금 112억도 되찾는다. 특히, 이번 보완협약안에는 인천대가 지역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점이 주목된다.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 산·학협력기금 총 3067억원을 지원받기로 한 기존 협약을 확인했다.

또 인천대는 제물포캠퍼스 6만7000평을 예정대로 제공받아 시정 역점사업인 원도심 개발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협약내용 중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11공구 조항은 쟁점이 됐던 부분이다. 인천시가 송도 11공구 부지 10만평을 조성원가로 제공하기로 했던 내용은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모두 삭제하고 3만평을 조성원가로 우선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손현경기자 son89@

백석대·백석문화대 우수 인재양성·교육 등 박차

中 치타이허시·KID글로벌과 MOU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가 4일 교내 본부동 소회의실에서 중국 하이룽성성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치타이허시, KID글로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과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 등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치타이허시 자진 시장, 왕평 발리현인민정부 현장 등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치타이허시 자진 시장, 왕평 발리현인민정부 현장(王峰), KID글로벌 김광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들은 중국 치타이허시의 우수한 인재 발굴과 교육 사업을 위해 ▲

상호 방문 교류 협력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우수인재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진행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과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중국에서 귀한 손님을 모셔 영광"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로의 강점을 함께 공유하는 좋은 친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타이허시 자진 시장은 "치타이허시의 학생이 백석대와 백석문화대에서 한국의 좋은 문화와 교육을 경험하고 돌아와 지역발전에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현경 기자

웅진씽크빅 '웅진스마트올' 한 달 만에 1만명 돌파

에듀테크 전문 기업 웅진씽크빅은 지난달 선보인 초등 교과목 AI스마트학습 '웅진스마트올'이 출시 한 달 만에 가입 회원 1만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일 론칭한 웅진스마트올은 40년간 축적된 웅진씽크빅의 학습 콘텐츠와 교육 노하우, 업계 최대 규모 약 500억건의 학습빅데이터를 집약한 교과목 인공지능(AI)학습 플랫폼이다. 약 500억건의 학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AI 플랫폼을 통해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과 자기 주도 학습을 이끌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초등 교과 과정에 필요한 필독 도서 및 인기 영어 동화 등을 제공하는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등 월트디즈니사와 독점 계약한 영어 동화도 함께 볼 수 있다. /한용수 기자



남서울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서울대

남서울대, 청년 창업역량 활성화 팔 걷어

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맞손

남서울대는 지난 4일 서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대회의실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윤승용 총장과 황철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청년 및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 ▲창업특강 및 페스티벌 공동 개최 ▲기업

가정신 함양 및 대학내 창업문화 활성화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승용 총장은 "이번 협약은 남서울대 학생의 창업 역량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철주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남서울대에서 열린 창업경진대회에 참석해 '혁신성장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 등 남서울대와 긴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손현경 기자

한국외대 대한전자공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최우수논문상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전자공학과 이은애 박사과정생(사진)이 지난달 강릉라카이센드과인리조트에서 창립 73주년을 기념해 열린 대한전자공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수상 논문은 '잔상 보정기법을 사용한 잡음 파워 스펙트럼 측정'으로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의료영상연구실 김동식 교수 지도로 이은애 박사과정생이 썼다. 이 씨는 삼성전자 후원의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번 논문은 동영상 x선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의료 장비인 동영상 방사선 디텍터의 잡음에 대한 성능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한 논문으로, 고성능 디텍터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 hys@

삼육대·송실대 '남북한 예체능' 주제로 토크콘서트

삼육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와 송실대 베어드교양대학이 4일 삼육대 백주년기념관 장근청홀에서 '송실대 X 삼육대 중간소음: 잊지 북한과 아랫집 남한의 소음극복 프로젝트'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공동 개최했다.

통일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평화와 통일에 발맞춰 남북한 예체능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먼저 김용성 삼육대스미스학부대학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음악(북한대학원대 이승희) ▲체육(현대북한연

구회 허정필) ▲미술(중앙대 최희선) ▲영상(탈북민 유튜브 이소율) ▲교양교육(삼육대 한금윤) ▲통일교육(송실대 채수민)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통일시대 예체능 및 교양교육 분야에서 남북한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어진 '평화와 통일의 목소리' 코너에서는 삼육대 학생들이 '통일한국과 나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자신의 전공 분야와 연관한 적용점을 모색했다.

/손현경 기자